

# 住宅設計에 있어서의 合理와 情緒의 調和

朴 墩 緒 — 亞洲大學校 教授

## THE HARMONY OF RATIONALITY WITH EMOTION IN HOUSE DESIGN

Park, Don Seo—Professor / AJOU University

住宅特輯의 한 부분으로 单独住宅에 관한 原稿請託을 받고 평소 필자가 느낀 문제들을 일정한 체계없이 적어 볼까 한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문제들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면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바가 될 것이고, 異見이 있다면 그런 見解도 있을 수 있다는 多樣性에 대한 肯定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讀者諸賢의 指摘과 叱正을 부탁한다.

### 1. 住宅設計의 어려움

住宅은 인간이 空間을 창조해서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해 온 가장 源初的인 建築이고 建築의 基本이라는 점에서는 현대에도 변함이 없다. 住宅은 人間生活의 거의 모든 機能이 포함 되어 있는, 人間生活의 縮圖를 담은 人間의 製作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住宅設計는 建築設計의 알파 오메가라 하기도 한다.

建築科 학생(大學이전 工高이전)이면 맨 먼저 받는 設計課題가 住宅이며, 반면에 建築의 大家도 明快하고 完璧한 해결을 못언기가 일쑤인 것이 住宅이기도 하다. 이렇듯 주택설계는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우며 가장 간단하고 가장 복잡하다.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平面이나 대략적 立面까지도 스케치할 수 있는 것이 住宅인 反面에 建築物 가운데 가장 심오한 哲學을 담아야 할 만큼 建築家의 經綸을 요구하는 것도 住宅이다.

이런 住宅의 특성 때문에 非建築家와 建築家가 다같이 많은 오류를 흔히 범하고 있다. 非專門家는 많은 종류의 建築物 가운데 가장 자기와 친밀한 것이 住宅이니 만큼 많은 경험을 실제 가지고 있다. 살아 본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構想도 해보고 計劃도 해보고 施工도 시켜 보았는가 하면 또 남의 집을 수없이 많이 보아 온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一家見이 형성되고

住宅建築쯤이야 나도 알 만큼 안다고 자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人間生活의 거의 모든 機能, 즉 노동·휴식·식사·위락·공부·수면·접객·배설·의식·육아 등 다양한 기능을 빠짐없이 收容하여야 하는 것이 住宅이고, 人間生活의 物理的·精神的 핵이 住宅이며 거기에는 空間의 構成, 形態와 색채의 構成, 材料의 構成, 빛·소리·空氣·물 그리고 에너지의 문제, 돈의 문제, 주위의 自然環境 및 人工環境과의 關係, 法律的 問題 등 數學的으로 말하면 수천만개의 답이 나오는 組合이 되는 것이 住宅이고 보면 「안다」고 속단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서 建築家없는 住宅이 생기고 建築士는 許可나 받아 주는 業者로 생각케 되며 집주경은 사람들에게 집주인은 자기가 설계했다고 장담하게 된다. 자기가 설계했다고 하는 집은 대개가 建築主와 木手와 美匠工의 合作이며 그것은 視覺公害의 원인으로 住宅街 내지는 하나의 都市를 품위있게 만드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다.

또 建築家 前에서도 住宅은 가장 간단한 設計감으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하는 자세를 갖는 경향이 있음도 부인 못할 것이다.(이것은 住宅設計監理를 건축가의 양심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노력과 시간에 비해 보수가 너무 낮다는 것과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장 人間住生活의 기본인 住宅이 다른 機能의 建物에 비해 현재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建築家가 住宅設計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여 전심전력을 다 했을 때 지나치게 자기 집착에 빠져 의뢰자의 의견이나 희망을 경시하거나 묵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建築家의

판단이 더 옳고 建築家의 선택이 더 정확하며 建築家의 감각이 더 예민한 것이 보통이므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非專門家의 관찰이나 경험이 더 예리하고 더 풍부하여 경청할만한 예도 많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建築物은 建築家의 作品이고 또 個人住宅이라 하더라도 公共性을 띄고 있으므로 建築主의 嗜好나 希望에 무제한 따를 수는 없으나, 거기에 살 사람은 建築主이고 돈을 내는 것도 建築主임을 생각할 때 구조나 안전과 같은 문제를 빼고는 建築家의 판단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즘 세계적으로도 住居建築(单独·聯立·아파트 등)은 특히 사용자의 의견이나 嗜好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設計에 참여시키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가령 居室 벽 한 면을 붉은 벽돌 치장쌍기로 設計했는데, 建築主는 外壁도 벽돌치장쌍기인데 실내까지 벽돌로 해서야 너무 단조롭고 싫증이 나니 다른 마무리로 바꾸자고 했다 치자. 建築家는 内外空間의 貫流니, 連續性이니, 居室은 住宅 안의 社會生活圈이라는 특성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효과적이라느니 하며 設計대로 시공하기를 주장했다고 치자. 이런 경우에 建築家는 專門性에 입각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의견일치가 안 되면 建築家 쪽이 양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여러가지 경우 어디까지가 양보의 한계인지 一般論으로 선을 긋기가 매우 어렵다. 구체적 경우 마다의 결정은 建築家의 개인적 建築觀, 센스, 판단력 그리고 성격 등에 달린 것이라고 하겠다.

### 2. 韓國의인 住宅

우리나라 現代住宅이 西洋建築에서 배워 오거나 모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겨를도 없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西洋式도 아니고 韓國的도 아니라는 데 있다.

韓國의 풍토와 韓國의 生活慣習으로 보아 西洋式 그대로는 당연히 맞지 않는 요소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것으로 적응시키고 우리 생활과 우리 감각에 맞게 변화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西洋式的 長點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또한 韓國的으로 더 세련시켜야 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韓國의 傳統的인 住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傳統住宅이라고 할 때 서민주택은 住宅이라고 부르기도 미흡한 형편이고 종류 이상의 住宅에서 여러가지 특성들을 논의하는데 다만 서민주택에도 종류 이상의 住宅과 공통적인 점들은 있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朝鮮朝時代 住宅에서 우리는 몇가지 특징들을 흔히 지적한다. 우리 傳統住宅은 안채·사랑채·행랑채 등과 같은 채(棟)와 담으로 外部空間을 分化하는데 그 空間들이 묘한 連結性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앙상블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 分化의 목적은 男女別 또는 上下間의 生活空間의 분리, 외부인과 가족과의 분리 등 프라이버시·位階秩序·男女間의 内外 등과 관련된 것이다.

内部空間과 外部空間과의 貫入과 연속성도 다른 東洋傳統住宅보다 강조되는 特質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조형상의 특색으로는 용마루와 처마의 懸垂曲線의 부드러움, 基壇, 卍字나 卍字의 窓戶 및 卍字文樣 등의 線의 構成 등을 들 수 있고 木材나 石材의 다듬질에서 거칠은 듯 하면서 구수한 맛을 내는 情緒 등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중후하면서도 담장이나 굴뚝·실내·벽장문 등 작은 면적에서 액센트가 되는 文彩나 그림 등을 등장시켜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디자인 效果는 참으로 놀랍다.

이와 같은 傳統的 요소들을 現代住宅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現代住宅의 구조로나 기능으로나 또 意匠的으로도 이러한 建築的 言語들을 직접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窓戶나 欄干 등에 傳統文樣을 쓴다든지,

콘크리트 지붕선을 懸垂曲線으로 한 다든지 담이나 外壁에 壽福 등 吉祥文字의 文樣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우리 고유의 정서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방법이고 실제 효과도 의문시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大邸宅이 아닌 住宅建築에서 傳統的 外部空間의 구성과 같은 수법은 쓰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여러 채의 건물을 배치하는 住宅以外的 建築에서는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線의 構成의 묘미도 現代住宅의 구조와 재료로서는 表出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室內 장식같은 데서는 비교적 성공한 예가 많다.)

傳統住宅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現代住宅에 되살릴 것이 있다면 그것은 全体 바탕에 흐르는 정서와 철학이리라. 그것은 한마디로 「自然의 美」와 「自然에의 歸依」라 할 것이다. 韓國美의 특성을 이렇게 요약하는데는 國內外 學者들의 說이 거의 일치하지 않나 보여진다.

住宅뿐 아니라 韓國建築 전체에서 自然에의 순응, 人間의인 尺度를 그 特質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特質은 自然에의 歸依와 順應을 바탕으로 하는 老莊의 無爲思想의 영향, 儒敎的 禁欲主義, 韓半島의 氣候風土 등에서 길러진 우리 民族性의 발로인 것이다. 도자기 하나를 보더라도 中國의 絢爛한 文樣과 과장된 윤곽이나 日本의 아기자기한 纖細美와 비교할 때 高麗磁器의 淸澄性, 朝鮮白磁의 淡泊性과 無技巧性은 바로 억제된 自我와 自然 그대로의 美를 無言中에 雄辯해 주고 있다.

日本의 柳宗悅같은 사람은 韓國美에 심취해서 애정어린 높은 안목의 많은 禮讚文을 쓰고 있거니와 특히 韓國의 木工芸品에 대해서 盤若心經의 不垢不淨, 大無量壽經의 無有好醜의 境地이며 노리고 만든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저 아름다운 것」이라고 탄복하고 있다.

韓國美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平凡美, 靜謐美, 적요미 등이라고 하고 또 韓國藝術品은 無技巧의 技巧, 非調和의 調和라고 한다. 이런 특성을 建築에 적용될 수 있는 이미지語로 바꾸면 과장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허

식과 街氣와 오만이 없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自然에 對立되지 않고 잔 技巧을 부리지 않고……등의 形容語句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金元龍教授는 韓國古美術品의 특징을 요약해서 '겸손·소박·순수하다고 했다. 이말은 建築에도 그대로 適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근래의 韓國住宅은 어떤가? 이와는 正反對로 가고 있다면 지나칠까? 물론 傳統的 韓國美에 꼭 집착할 필요는 없다. 傳統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를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그 傳統의 가치를 인정할 때 따라야 할 것이다. 겸손·소박·순수 세가지는 停滯的이고 消極的인 인상이 풍긴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人間不信·人間疎外·利己主義·物質萬能의 風潮 속에서 얼마나 美德인가?

나는 여기서 道德君子然하고 설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現代住宅에서 우리 고유의 哲學과 思想과 美感覺으로 볼 때 몇가지 고쳐야 할 바를 말하려는 것이다.

우선 자기과시와 자연에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住宅의 높이를 크게 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近來 아파트의 普及으로 單獨住宅의 天花板높이도 2.3~2.4미터로 많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建築主가 더 높은 天障高를 바라는 경향이 있고 더구나 天花板높이에 관계없이 집전체를 높게 보이려고 욕심을 부린다. 집全體를 높히는 방법은 1층 FL을 높이는 방법, 建物 자체의 높이를 크게 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래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建築用語에도 없는 미니 2層이라는 괴상한 空間構成은 주로 집을 들어 올려 높게 보이려고 한 수법이다. 물론 建築家가 이렇게 선도한 것은 아닐 것이고 또한 地形이나 기타 다른 여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空間構成上 합리적인 경우도 있겠으나 주로 집을 높일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썼다면 잘못이다. 또한 建物 자체의 높이寸數를 불필요하게 키운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다.

필자가 5년 전에 J동 平地住宅街에 친척집을 設計해서 신축한 일이 있는데 FL을 GL에서 250 높이이고 처마

높이가 GL에서 2,650인 單層 모임지 붕으로 하였더니 팔려고 내놓은지 2年半이 넘도록 밖에서만 보고는 집이 낮다고 타박하고는 가버려서 아직도 안 팔리고 있다. 자연에의 순응과 겸손·검소 등과는 거리가 먼 얘기이다.

더 문제인 것은 지방의 취락구조 개선과 農家改良事業의 실태이다. 農村住宅으로서의 機能이나 에너지節約, 資材浪費를 가져오는 空間構成 등의 문제는 여기서는 論外로 하고, 거의가 方位를 무시한 채 国道나 고속도로를 향해 威容(?)을 자랑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주위의 自然環境과의 조화를 도외시한 친박한 原色の 지붕이라든지, 전혀 合理性도 없고 視覺적으로 아름다울 수 없는 急한 물매의 지붕形態, 材料見樣展示 같은 벽마감재의 사용, 稚拙한 베란다·欄干의 디자인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美的感覺을 타하기 전에 展示效果와 自己顯示, 虛飾·誇張·自然에의 逆行 등 傳統的 우리 先祖들의 意識과는 너무나 對照가 되는 意識이 문제이다.

이러한 意識은 建築的인 면보다도 여러가지 社会的·經濟的 원인에서 길러진 것이 많을 것이고 또 建築家보다는 住民들의 嗜好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되나 建築士나 担当公務員이나 施工業者를 막론하고 모든 建築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합리적이며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문제해결에 임하고 주민들을 제도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같은 脈絡에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都市住宅의 大門構成이다. 都市住宅의 90% 이상은 아마도 지붕을 가진 大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지붕이 있다는 점만으로 볼 때 우리 傳統住宅의 大門에서 따왔다고 할지 모르나 우리 在來式住宅의 大門은 그것과 連接된 담이나 집의 형태와 構造上 자연스럽게 지붕이 필요했던 것이며 現代住宅에서는 거의 다 大門에 지붕을 덮은 것은 그 當爲性이 박약하다. 물론 大門을 보호한다든가, 비를 피한다든가, 우편함에 비가 안 맞게 한다든가 하는 機能上的 意味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大門에 지붕이 있다는 것은 역시 大門을 우람하고 확실하게 부각시킴으로써 自己를 과시하자는 욕구의 표시라고 본다.

다음으로 傳統的思想으로 보아 너무

화려하지 않고 자기를 主張하지 않는, 人工이 덜 가해진 自然材料 내지는 準自然材料가 住宅마감재로 더 많이 쓰여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韓國的인 美를 곧바로 느끼게 한다기 보다 그런 精神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에 서이다. 예를 들어 外壁을 벽돌치장 쌓기로 하는 등은 근래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데 이는 나쁘지 않은 경향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나는 콘크리트 블록이 치장쌓기로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면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非專門家들은 콘크리트 블록을 평가절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아마도 과거 30여년간 低品質의 블록이 범람하여 이미지를 나쁘게 굳힌데서 온 결과라고 보여진다. 原產地에서는 聯立住宅을 아파트보다 高級住居로 보통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聯立住宅을 低質住宅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는 기현상과 일맥상통한다고나 할까.

나는 어쩌다가 콘크리트 블록 치장쌓기로 된 住宅을 보면 그 주인이 建築家거나 아니면 상당히 안목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되는 버릇이 생겼다. 나도 현재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집을 다시 지을 것이고 그때는 外壁을 블록 치장쌓기로 하는 것은 물론 内壁까지도 어떤 면은 블록마감으로 해볼 생각이다. 나는 콘크리트 블록造가 工期도 단축되고 工事費도 절약되며 熱絶緣效果도 우수할 뿐 아니라 가장 소박한, 그리하여 가장 韓國的인 마감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벽돌도 붉은 벽돌뿐 아니라 시멘트벽돌이나 기타 다른 質感과 色을 갖는 벽돌을 개발하여 콘크리트 블록과 더불어 치장쌓기로 활용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래 성행하는 造園에 대해서도 韓國的인 정서를 얘기하자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10여년까지 남았다가 헐린 毓祥宮(七宮이라고도 함) 후원은 북악산 기슭의 조그만 空間을 長台石 같은 화강석을 군데군데 놓아 境界로 삼은, 庭園이랄 것도 없는 것인데 그 韻致는 실로 빼어났었다고 한다. 中國庭園의 규모와 호사스러움이나 日本庭園의 技巧과 格式같은 것은 없어도 自然 그대로이면서 無造作의 造作이 주는 감흥은 韓國庭園만이 갖는 성격이라 한다. 剪枝를 하여 人工的으

로 변형시킨 상록수를 주로 많이 심고 自然石을 무더기로 쌓아 올리는 등의 근래의 造園方式은 극적도 없고 그렇다고 創意性이 있는 것은 더욱 아니며, 영향을 받았다면 日本庭園에서 받은 것이라고나 할 것이다. 마당에 잔디를 입히는 것은 西洋住宅에서 따온 하나의 무난한 造園處理이겠으나 나무는 상록수보다는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樹種을 심는 것이 自然을 숭상하는 우리네 방식이며 自然石도 쌓는 것이 아니라 갖다 놓는 것이 제격인 것이다.

### 3. 住宅의 流行에 대하여

現代建築은 특정한 樣式이 없는 것이 樣式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住宅建築에서 樣式아닌 樣式이랄까 또는 유행같은 것이 몇해씩 風靡하곤 한다. 平地붕이 소위 文化住宅의 大宗을 이뤘던 시기가 있었는데 하면 「入」字形的 지붕形態가 불란서식이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휩쓸더니 요즘은 RC슬래브 위에 스페인 기와로 이는 것이 또 유행인 것 같다. 外壁에 花崗石 붙이는 것이 20평짜리 住宅에서도 盛行하던 때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미니 2층도 그런 현상의 하나였다. 轆轤로 짠 계단의 난간왕자기둥, 쇠사슬로 만든 선홍통, 제물치장콘크리트의 사용, 居室을 2층 천장까지 개방하는 構成 등도 유행을 탔던 수법들이다.

최근에는 開口部の 아치, 外壁밖으로의 돌출창고 등이 눈에 많이 띈다. 물론 여기서 열거한 것들이 하나의 建築디자인 어휘로서 그것대로의 의미가 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행에 휩쓸려서 語法이나 語感에 어긋나는 單語를 남용한다면 매우 저속하고 그릇된 文章이 되듯이 住宅에서도 必然性 없는 유행을 따르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住宅은 옷과 달라서 유행에 뒤졌다고 훌훌 벗어 던질 수는 없는 것이다. 住宅 하나하나로 볼 때에는 유행이 지나면 곧 싫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人間의 심리이며 또한 都市나 마을이라는 커뮤니티로 볼 때에도 유행을 따르면 劃一的이어서 沒個性과 단조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